

수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음 어장보전을 위해서는 항상 이를 위한 감시체계 및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저준설 등 해양토목공사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네째, 어항을 명실공히 어촌정주생활권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어촌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어항이 현재도 어촌정주생활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기능은 불완전한 실정이므로 명실공히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이 정주체계상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여 시설규모나 구조 및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어항이 어촌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특히 교통, 문화, 행정과 관련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들 기능과 관련있는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간 균등발전 내지 지역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규모의 1·3종어항 외에도 2종어항 및 소규모어항의 개발에 더욱 주력하며 자연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구조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제개발초기에 어항시설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았을 때는 대규모 어항의 우선개발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으나 현재 여건하에서는 이에 못지 않게 지역의 균형발전 내지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소규모어항의 개발과 완공 역시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직결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의 어업여건은 물론, 어업의 산업여건까지

고려한 구조나 형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해양레저 및 휴식·휴양공간의 제공과 관련한 어항의 기능강화가 요청된다. 산업사회가 진행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들 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인데 쾌적한

해양레저 내지 휴식·휴양공간을 제공함은 바다, 어촌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후 주업인 어업과의 마찰이 크지 않을 경우 관광어항의 개발은 금후의 어항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21世紀를 指向하는 漁港개발方向

多學問的으로의 接近 필요

金正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漁港開發의 基本構想

어촌의 공간구조와 어항의 위치

지표상의 모든 공간은 미시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모든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동시에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기능적인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은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모든 요소가 기능적으로 조직되어 하나의

체계(system)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는 어촌 지역을 어업지역이라는 인식의 틀 속에서 국민의 식량인 수산물의 생산공간으로만 단지 생각해 왔다. 즉 경제적 시점에서 바다 및 어촌을 자원 또는 토지로 파악하고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어촌지역 공간도 인간정주의 공간이며, 하나의 통합된 사회공간이라는 사실이 망각되어져 왔다.

따라서 어촌지역은 수산업을 핵으로 제조·유통·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이 포함된 경제적 공간이 있는 반면에,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쾌적한 인간거주와 따뜻한 인간관계를 느낄 수 있는 생태적 공간이 있고, 그 속에서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과 자아실현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공간이 복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도 1).

그런데 이러한 어촌의 공간은 공간구조상의 최하위에 위치해 있는 어촌마을(自然部落)에서 그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마을의 상위에 위치하는 어촌중심지(후술하게 될 소정주구 혹은 정주구의 중심성)에 그들의 욕구를 의존하게 되며, 하위의 중심지는 보다 상위의 중심지 시설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어촌공간은 중심지와 배후어촌을 결합한 하나의 지역단위로써 일정한 형태의 정주체계를 형성하고, 정주체계의 중심성에 따라 일정한 형태의 중심지체계를 형성한다. 다시 말하면 어촌의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생활활동을 하는 어장과 그들의 생활공간인 마을,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어항 및 어업부대시설, 소비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시설,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시설, 도로, 체육 등 공공시설 등이 합리적으로 배치되고 연결되어 있는 인간정주의 생활공간, 즉 어촌정주생활권을 형성한다.

생활권의 형성은 중심지와 배후지간의 구심적 원심적 작용에 의

해서 이루어지며 이때 중심지 기능은 배후지역주민을 위한 재생산이나 서비스공급의 기초적 산업으로 이루어지고 발전하여 간다. 또한 생활권의 구상과 관련하여서는 생활권의 형성 조직이 중심지 기능을 보강, 보완함으로써 그리고 체계적으로 유도, 편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정착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심지의 발전은 중심지에 위치한 산업들이 전후방산업 관련성을 통하여 경제공간을 통합하기 때문에 어촌지역은 어촌의 교통망과 계층화를 통하여 공간적 통합을 달성하게 된다. 또한 중심지 자체에서 조성된 성장력을 배후어촌에 이전시켜줌으로써 정주생활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와같이 어촌정주체계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어촌의 중심지는 어떠한 공간적 성격을 지니는가?

어촌은 도시나 농촌에 비해서 어촌중심지의 중심성이 대단히 낮다. 또 어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자본장비율이 높고 생산요소가

저장성이 낮은 소모재가 많으며 생산물은 부패변질성이 강하고 가공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어촌중심지가 정주생활권의 중심지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서 혹은 오지인 배후어촌과 육지 혹은 내륙지를 연결하는 교통결절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 배후지역주민들의 기본수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생활필수품의 공급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셋째, 어업생산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선용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넷째, 어획물을 신속하게 양륙 유통할 수 있는 유통가공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다섯째, 황천시에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어촌중심지의 기능을 볼 때 어촌중심지의 공간적 성격은

첫째, 어항이 입지하여야 하고,

둘째, 해상 및 육상교통수단이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셋째, 각종 어업생산지원시설 및 어항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넷째, 생산물을 위판하기 위한 위판시설과 내륙지로 수송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다섯째, 시장이 발달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어촌중심지의 모든 성격은 크게 어항의 입지와 해상교통의 결절지의 둘로 요약될 수 있으며, 해상교통 역시 어촌지역에 있어서는 어항기능의 일부로



**어촌중심지의
개발은
어항의 개발과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없으며,
어항의 개발은
어촌중심지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측면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포함된다. 따라서 어촌중심지의 공간적 개념은 어항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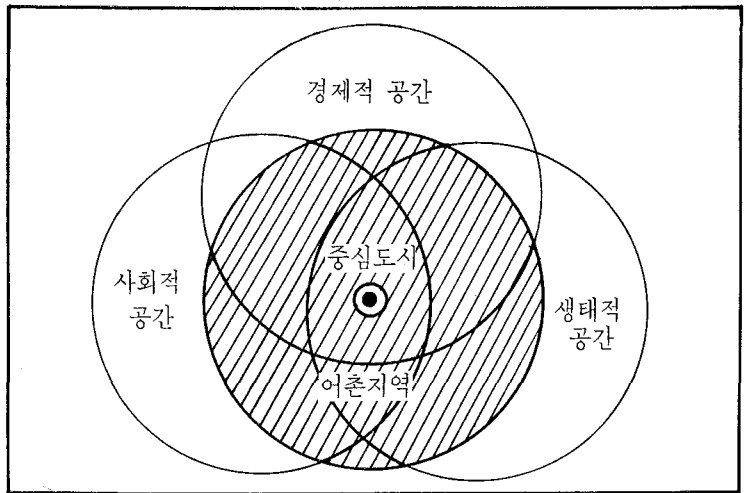
일본의 지리학자인 小沼勇(1956, 어촌의 생산구조, 현대지리강좌 Vol. 1)은 “어항은 어업생산기반과 사회적 요청이 상승관계를 이루면서 복잡한 기반위에 입체적으로 존재하는 복합적기능을 갖는 유기체적존재”라고 하였으며, 우리 나라 어항법에서는 어항의 역할을 어획물의 양륙, 출어준비, 어선안전수용 등 어업생산활동의 지원기지인 동시에 어촌주민들의 생활기반이고, 어업관련산업을 주로 하는 지역경제발전의 기반이며, 교통 정보의 기지로써 어촌지역사회의 핵심적 근거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Marenovation 구상에서 수산도시란 어항기능의 복합적 내용을 표현한 말로써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어촌중심지의 개발은 어항의 개발과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없으며, 어항의 개발은 어촌중심지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측면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어촌중심지체계와 어항개발방향

앞에서 어촌지역은 일정한 공간체계를 가지며, 이들 공간은 중심지에 따라 일정형의 중심지계층체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를 가설적으로 정리하면 <도 2>에서 보는 바와같이 ‘마을 → 소도읍Ⅱ → 소도읍Ⅰ → 중심도시’로 중심지계층을 이룬다. 이를 다시 어항의 공간적 위치와 기능의 측면에서 가설적으로 정리하면 ‘선류어항 → 소어항Ⅱ → 소어항Ⅰ → 중심어항’으로 체계화된다.

(그림 1) 어촌지역의 공간개념



어촌중심도시는 상위의 지역생활권과 하위의 중심지 혹은 배후어촌지역을 연결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한다. 대체로 어촌중심도시는 인구 2만명이상의 시 혹은 읍으로써 행정, 교육, 보건, 의료, 교통, 유통의 중심지이며, 지역주민의 기본수요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중심지이다. 특히 중심도시는 배후어촌에서 생산된 각종 수산물의 양륙기지임과 동시에 위판(혹은 공판)시설, 가공시설을 갖춘 경제적 중심지이다.

소도읍Ⅰ은 3~4개면의 생활권으로써 인구 3천명 이상의 어촌정주구 중심지이다. 따라서 소도읍Ⅰ은 완결형 어촌정주생활권에 있어서는 중심도시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비교적 완결형 정주권을 갖춘 도서형어촌정주생활권에 있어서도 지리적인 격렬성으로 중심도시와의 접근도가 비교적 낮은 소정주권단위의 생활권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또 생활권 중심도시가 내륙에 위치해 있거나 어촌보다는 도시적 기능이 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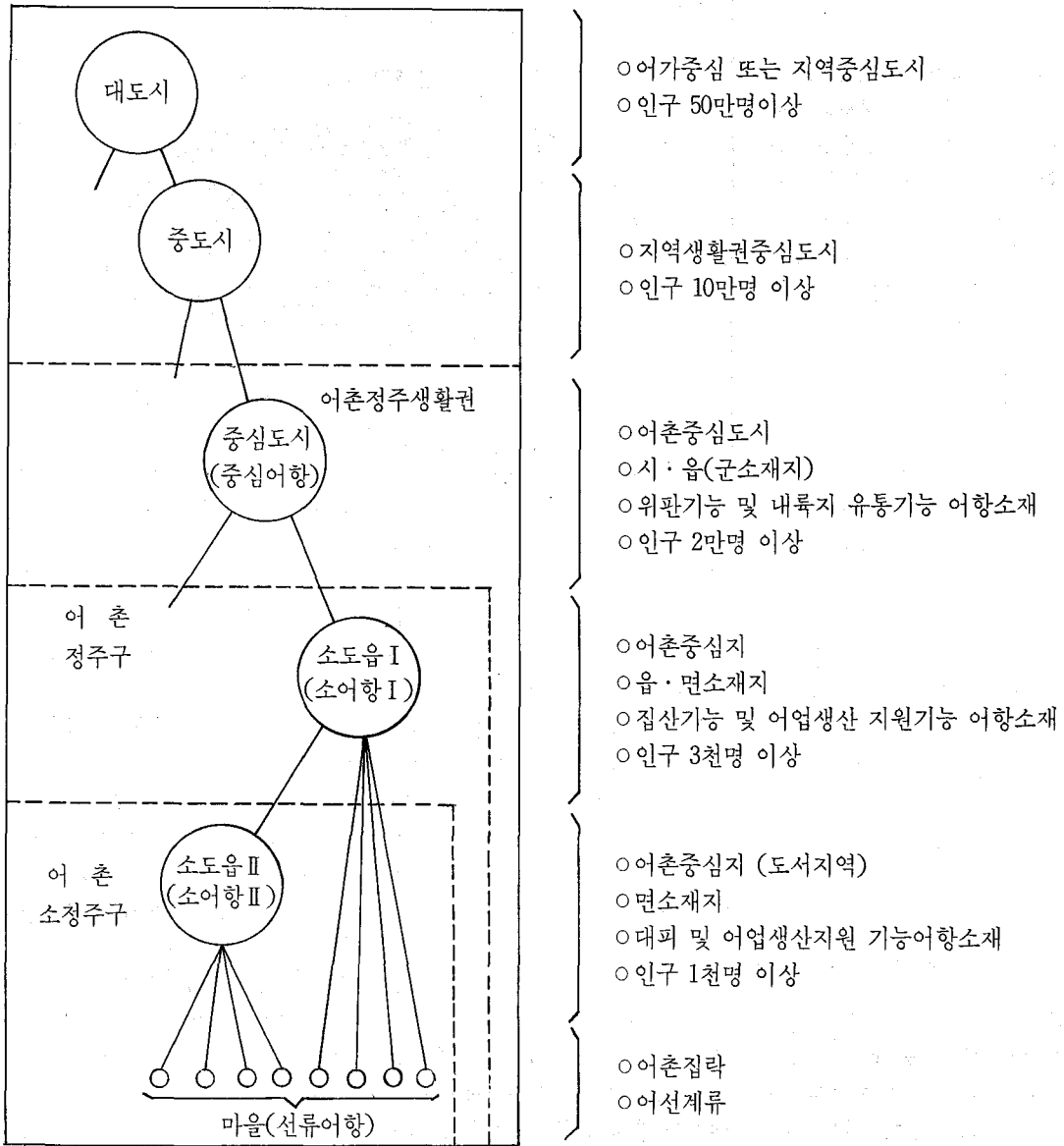
중대도시근교형어촌에 있어서도 소규모어항을 중심으로한 소도읍Ⅰ의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다.

한편 소도읍Ⅱ는 인구 천명 이상의 1개면 생활권으로써 중심도시에 대한 접근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 정주권개발이 전략상 설정된다. 따라서 낙도, 오지가 생활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어촌에 있어서는 소도읍Ⅱ는 정주체계상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어촌중심지의 개발은 궁극적으로 어촌정주생활권의 도시적 기능을 확대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상호연관시키며 사회, 경제,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여 국토공간의 균형개발과 동시에 어촌주민들이 도시에 못지않은 소득수준을 누리고 일상생활의 기본수요를 생활권내에서 충족하면서 비전과 긍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풍요롭고 활기찬 어촌공간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촌의 중심지인 어항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그림 2〉 어촌지역의 중심지 계층체계



첫째, 어항의 개발은 지역의 수용력(Acommodation Capacity)을 고려하여 과다한 개발로 인하여 바다 및 어촌의 자연환경과 질서를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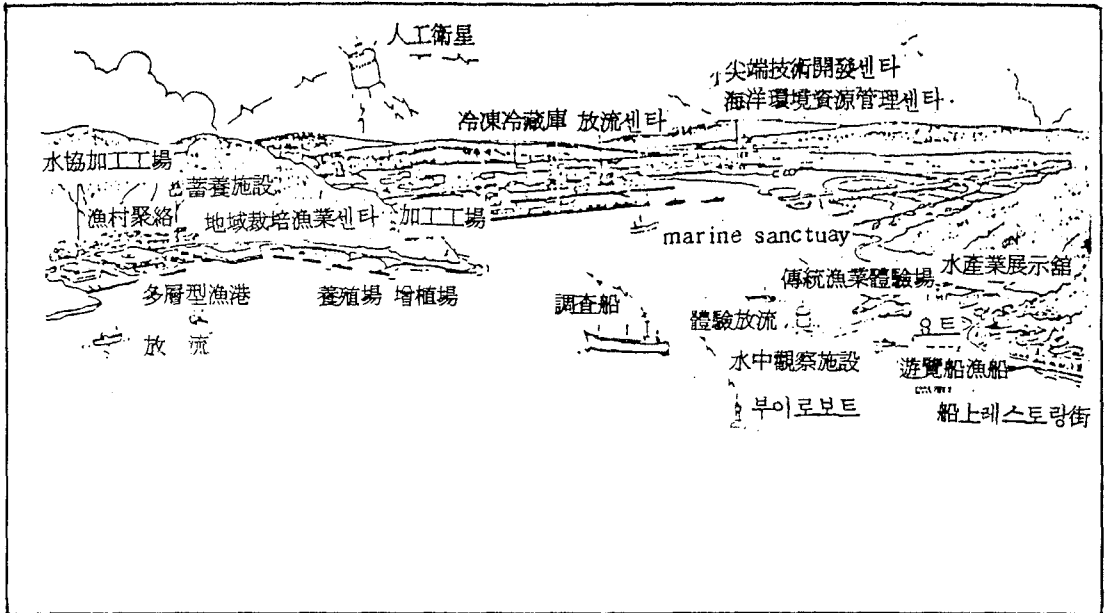
둘째, 어촌중심지의 공간배치는 상호보완적, 보충적, 유기적, 관련

성을 갖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어항의 개발은 개발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어야 하고 개발의 경제적 편익(Economic Benefits)과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s)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네째, 어항의 개발은 지역주민들의 기초수요에 입각한 지역계획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지역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 경제, 사회 및 자원특성에 따라 지역여건에 적합한 영역적 개발이어야 한다.

〈그림 3〉 21세기 어항의 모습



資料：日本の 海洋綜合開發構想，1986 참조

다섯째, 어항의 개발은 자치화된 지방정부가 주민의 참여와 협조속에서 그 지역의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속에서 종합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어항의 개발은 지역계획, 지역개발, 해안기술, 생명공학, 사회경제 등이 망라된 다학문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하에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어항개발의 목표는 첫째, 국민동물성단백질 공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둘째, 자연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고소득기반의 구축, 셋째, 쾌적하고 편리한 어촌정주생활 환경구성에 두어야 한다.

이와같은 어항개발의 목표를 실



현하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기반시설의 종합적 정비 개발.

● 둘째, 지역어업진흥을 위한 지역어업중심센터 조성.

셋째, 어촌경제의 고도화를 위한 자연산업육성.

네째, 하부구조 및 복지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한 어촌정주생활환경의 도시화.

● 漁業能率化를 위한

漁港시설의 高度整備, 開發

개 요

어항시설은 어촌의 기간산업인 어업의 능률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어업생산, 수산물 양륙 및 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어촌경제의 활성화와 어촌정주권 형성에 있어서 어항시설의 개발은 가장 기본적인 과제임과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어항시설은 기능면에서 크게 어항기본시설과 어항보조시설로 대별된다. 어항기본시설은 다시 어선의 안전수용을 위한 항구시설과 어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생산지원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어항보조시설은 유통시설 및 가공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어항시설의 개발에 있어서 몇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은

첫째, 당해 어촌지역의 어업형태, 배후지 발전의 가능성, 정주체계상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설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각 시설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어항신공간의 창출 및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합한 공간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어항시설의 기능별 부문별 개발을 지양하고, 관련시설의 패키지에 의한 완공위주의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선수용시설의 개발

어항은 각종 자연적 위험으로부터 어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항내에서의 모든 활동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어선의 안전수용시설로서는 어항에 진입하는 파랑을 차폐시켜 항내 정온도를 유지시켜 이용어선의 안전정박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파제, 소파제 등 외곽시설이 가장 비중이 큰 구조물이다. 한편 어선의 항내 활동을 위한 접안시설은 어획물의



양륙을 용이하게 하고 어선의 안전계류를 위한 부두시설이 가장 중심이 된다.

1970년대 중반이후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어항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어선의 안전수용을 위한 외곽시설의 개발과 긴급대피항 건설에 우선순위가 두어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7년말 현재 전국의 어선안전수용률은 80%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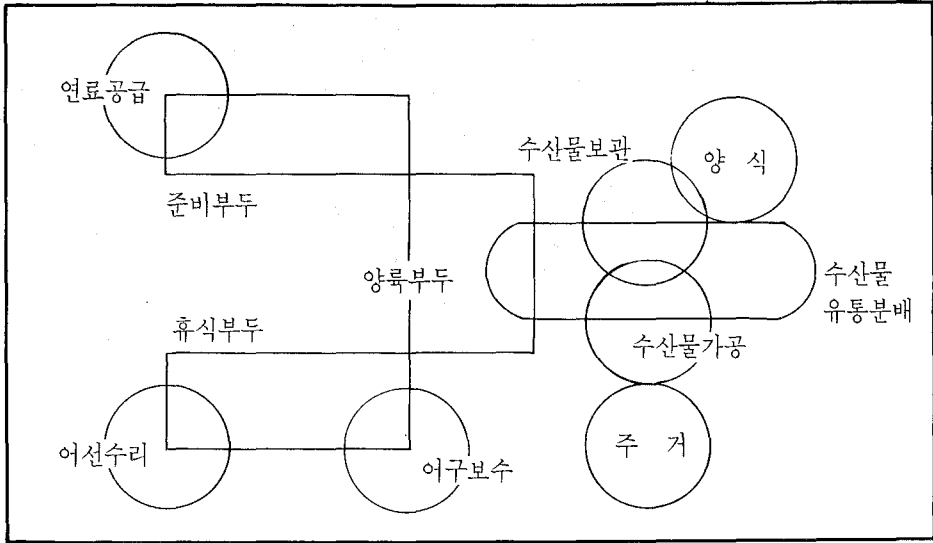
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또한 지정항에 있어서의 항내수면적에 의한 추정치로써 대규모 태풍, 폭풍, 해일 등의 내습시 절대안전 수용능력은 크게 떨어진다. 특히 1,555여개에 이르는 소규모항은 이러한 재해에 거의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접안시설 혹은 계류시설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의 어항은 용도별 시설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어획물의 양륙, 어업생산자재의 적재, 적하 등의 작업을 위하여 축조하는 구조물의 안벽, 물양장, 잔교 등의 시설물이 불완전하게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00년대의 고도산업사회속에서 안정된 직업으로 어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어민을 정착시키고, 어가경제의 안정화를 유지시키며, 다양한 어항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어선수용시설 개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항 외곽시설의 확충과 안전성 제고이다.

어항의 외곽시설은 방파제가 주 시설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방사제, 파제제, 호안, 소파제 등이 병행하여 시설되기도 한다. 방파제는 해중시설물로서 시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번 건설하면 고정적이어서 이전이나 재배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초기 계획단계에서 제반 설계조건을 감안하여 완벽한 시설로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파랑은 외곽시설의 구조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시설후 붕괴에 의한 어선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건설되어야 하며 월파로 인한 항내 정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그림 4〉 어항기능도



한다.

둘째, 다목적 어항의 건설이 필요하다.

다목적 어항은 21세기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토목기술을 바탕으로 어항의 입지여건이 불리하거나 항내 수면적이 협소한 지역에서 어선의 안전수용과 신어항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다층형 및 이안형어항 등이 이에 속한다. 다층형어항은 어선의 접안이 용이하도록 접안시설을 육지에서 격리시키되 육지와 접안시설을 다층구조물로 연결시켜 물양재, 헬리포터, 주차장, 어민주택 등 다목적 이용을 꾀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리고 이안형어항은 어항수역의 입지여건상 외곽시설이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 잔교로 연결된 해상에 일정한 접안시설과 외곽시설을 설치하여 어선을 안전수용하는 형태로써 어선의 출입은 시설물의 황천시 항구폐쇄문을 통하도록 한다. 이러한 다목적 어항

의 개발은 일본에서도 해양종합개발구상(Marenovation 구상)을 통하여 구체화 되고 있다.

세째, 접안시설(박지시설)의 기능분리와 정비 확충이 필요하다.

접안시설은 잡은 어획물을 신속하게 양륙처리하고, 선수품의 보급, 어선어구의 수리 등 출어의 준비 및 다음 출어를 위하여 휴식 또는 대기를 위한 양륙, 준비, 휴식부두로 분리하여야 하며, 이들의 기능이 상호 중복되지 않으면서 연계성을 갖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도 4 참조). 그리고 접안시설의 규모는 황천시 혹은 성어기에 대비한 공간규모가 설정되어야 한다.

어업생산지원시설의 개발

어항이 어촌정주공간의 중심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업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생산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생산활

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이용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수산업은 자본장비율이 대단히 높고 다양한 생산요소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며, 이들 생산요소는 상당부분이 소모성이 강하거나 저장성이 극히 낮다. 따라서 어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설들은 지역어업의 정착,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며, 어가의 어업경영능률을 제고시키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같은 어업생산지원시설은 어업기자재보급시설과 생산보조시설로 대별되며, 자체에는 선수품공급시설, 급유시설, 급수시설, 급빙시설, 제빙 및 저빙시설 등이 속하며, 후자에는 어선어구건조, 어선수리, 어민휴식시설 등이 속한다.

어촌중심지인 어항의 기반시설인 이들시설의 개발은 첫째, 생산어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간의 공간적인 접근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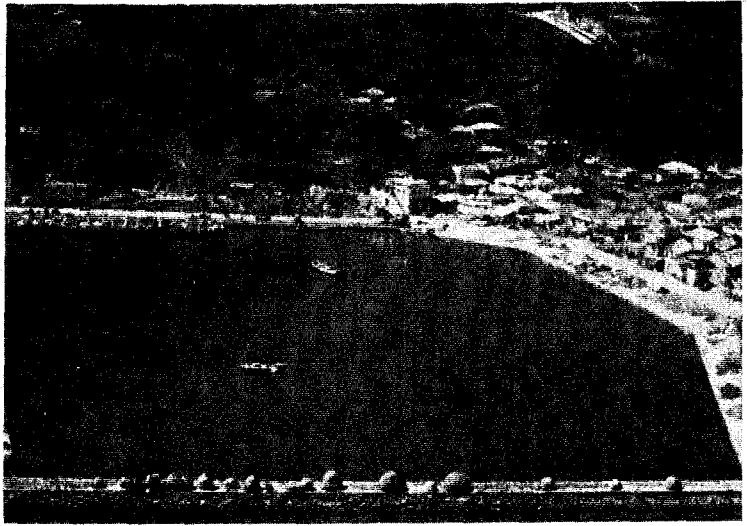
높여야 한다. 특히 급유, 급빙, 급수시설은 어선에서 직접 공급 받아야 하므로 준비부두에 배치되어야 한다.

둘째, 이들 시설은 재출어를 용이하게 하고, 필요한 양을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로어업은 이동하는 자원을 포획하는 것이므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크게 받으며, 양식업에 있어서도 시설의 시기와 생산의 시기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급지체로 인한 출어지연은 어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

세째, 이들 시설의 개발은 지역내 주민이나 이들의 조직체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어업생산지원산업은 지역내의 수요를 지향하게 됨으로써 외곽자본이나 외부경영은 어촌내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게 되어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활동에 의한 자금이 지역내에 축적되어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유통가공시설의 확충

수산물의 생산은 비탄력적이고 일사다회적이며 부패 변질성이 크기 때문에 타산업에 비해 유통이 어렵다. 특히 양륙, 위판, 저장, 가공, 수송 등 물리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를 갖지 않으면 전체 유통과정의 원활화를 기할 수 없다. 즉 유통은 '물이 흐르듯' 막힌 데가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따라서 어획물을 양륙하는 부두, 이를 적재하는 물양장, 산지에서 1차가격을 형성하는 위판(공판)



장, 내륙지로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한 집배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한편 수산물은 강한 부패성을 갖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큰 상품이기에 때문에 저장·가공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민의 수산물 소비경향이 과거에는 선어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근년에 이르러서는 가공제품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금후에 있어서 가속화,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산물이 원활한 유통과 가공비율의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수산물 양륙시설의 확충과 양륙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산물을 원활하게 양륙하기 위해서는 어선의 체항시간을 단축하고 접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양륙부두의 확충과 물양장의 확장이 필요하며, 하역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륙이송펌프(fish pump)등과 같은 하역작업의 자동화 및 생에너지화를 위한 양륙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위판장시설의 고기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판장은 바다에서 양륙된 수산물의 가격을 1차적으로 형성하고 내륙의 각 소비지로 수산물을 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수산물가격의 형성은 경매에 의해서 한사람의 경매인과 소수의 중매인들이 참여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시장가격이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중심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불합리성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에 있어서는 경매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텔레타이프 및 전화에 의한 경매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매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상자의 규격화, 어체선별의 자동화, 선도측정자동시스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째, 가공처리시설의 확충과 가공기술의 고도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수산물은 부패성이 높고 일

시다 확대되기 때문에 선어상태의 유통은 상당히 한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제품가치를 유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수산물은 가공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고차가공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부

가가치의 증대를 통한 어가소득의 증대와 가공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산물가공산업을 적극유치 또는 확장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자동어체처리기술 등 가공처리자동화, 미이용다획성 수산물의 가공소재개발, 신가공제품개발 등 가공기술의 고도화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연근해어장은 자원재생능력을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해양오염의 빈발과 대규모화로 어업경영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해양오염을 예방, 감시하고, 어업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센타의 시설은 어업생산성 제고에 의한 어가소득의 증대 뿐만아니라 어촌인구의 지역안주축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수산진흥원 본원과 각도에 1개소씩 배치되어 있는 수산연구소가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 어촌의 전체 상황을 파악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아니라 21세기의 다양한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기관에 의한 정주권 단위의 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센타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먼저 해양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뉴미디어(New Media)활용에 의한 해양환경정보체계 개발, 둘째, 해양오염상황 조사 시스템 개발, 셋째, 어장오염사전인식 예찰기술 개발 넷째, 어장노화방지 시설 확충, 다섯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이 필요하다.

한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자원조사와 데이터뱅크의 설치, 둘째, 어해황의 종합적인 예측시스템 개발, 셋째, 적정어획 노력량 산출기술의 개발, 넷째, 지방행정, 수산연구소, 어촌지도소, 수협 등의 상호협조체제 구축 등

● 地域漁業振興중심센타 造成

개 요

오늘날 우리 나라의 수산업은 어업근대화사업에 의한 연근해어선의 동력화, 고속화, 어로장비의 고도화, 자동화로 어획노력량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에 상응한 자원조성 및 자원관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함으로써 자원재생능력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하였으며, 증산지향어업정책으로 인한 천해양식어장의 과도이용은 어장생산성과 품질의 저하, 재해발생증대 등 어장노화현상을 촉진시켰고, 임해공업육성정책과 임해도시의 확충으로 산업폐수, 도시하수, 폐기물 등의 과도한 해양유입은 해양환경의 악화를 증대시키고 있다.

한편 국제적인 개방화는 농수산물수입자유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며, 수산물도 멀지않은 장래에 국제경쟁의 시대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또 국내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업기술의 보편화로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시장경쟁력의 우위선점을 위한 정보 및 통신의 이용이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어항에는 비교우위의 지역어업을 육성 발전시키

기 위한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센타, 지역재배어업센타, 유통정보센타 등이 위치해 있어야 한다.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센타 조성

21세기의 어업을 자원약탈적 어업에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연 생태계와 서식환경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원의 재생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21세기의 어항에는
비교우위의
지역어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해양환경 및 자원관리센타,
지역재배어업센타,
유통정보센타
등이
위치해 있어야
한다.



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재배어업센터 조성

종래의 증식은 그 개념이 천연 산란에 의한 자원의 자연증대를 기대하는 소극적인 낚임이다. 여기에 비해 재배어업은 인공적으로 종묘를 생산하여 이를 방류하여 보다 확실하게 자원을 함양하고 수산토목공학을 도입하여 성육을 조장하며 성어로 충분한 상품 가치가 될 때까지 크는 것을 기다렸다가 필요시에 필요한 양을 잡아내고, 다시 인공 종묘를 방류하며 길러나가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배어업은 수산자원의 재배화라는 정책적인 용어이며 자원관리형어업을 대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재배어업이 어촌의 기간산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책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인공종묘생산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정부기관인 국립종묘배양장이 전국에 9개소가 있으며 다수의 민간 배양장이 있다. 이중 민간종묘배양은 방류용보다는 분양의 목적으로 종묘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립종묘배양장에서는 방류용과 분양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방류용은 대부분 보리새우, 전복 등에 불과하며 어류의 방류는 전무한 실정으로 어족자원의 증대와는 무관하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 일부 어종에 대한 인공종묘생산기술만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며 시설 및 인력의 과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재배어업중심의 어업



어촌의 중심어항에 위치하는 유통정보센터가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경영어가의 안정성을 제고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묘생산체계를 3원화하여 현재의 2대종묘생산체계외에 종묘의 대량생산과 중간육성 및 적지방류를 담당하는 수산자원조성공사(가칭)를 설립하고, 정주권단위마다 지역의 어업특성에 적합한 하부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인공어초어장이 확대조성되어야 한다. 인공어초는 인위적으로 어족이 군집하고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자원의 양식과 더불어 조업의 능률화를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동안 인공어초는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설되어 투자의 효율성에 적잖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인공어초의 시설은 부분적 소규모시설에 의해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주권 주변해역의 해양지형에 따른 인공어초의 다양한 개발과 더불어 대규모 어초군 혹은 어초대를 형성하도록 수산토목공학적인 기술개발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셋째, 첨단기술을 수산증양식에 응용하기 위한 수산기술개발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생물생산에 있어 첨단기술인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보건, 의료, 공업 및 농수산업 등 각 분야에 활용가치가 높은 기술로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산분야에 활용되어 오고 있다. 일본에서 기술개발이 확립된 bio-tech 응용 방법은 김, 미역의 선발성육방법에 의한 다핵성품종개발, 교잡육종에 의한 잉어 생장률 증대 등이 있다.

유통정보센터의 조성

수산물 유통의 다량화, 원격화, 고도화 등이 무리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산물 유통의 합리화와 효율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물적유통시설의 확충, 시장기능의 합리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유통정보체계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생산어민의 측면에서는 과거 채취형어업에 있어서는 가격 혹은 출하량과 같은 시장정보는 불필요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며 단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조건에 관심이 두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증양식어업의 발달로 어업경영자들이 자신의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할 기회를 갖게 됨에 따라 생산 및 출하조정을 위한 시장정보가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유통참가자들도 자신의 영업위험을 감소시키고 정당한 이윤

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유통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이와같은 유통정보는 첫째, 산지시장 및 도매시장의 가격 및 반출 반입물량, 둘째, 유통경로상 여러 단계의 물량, 세째, 냉동·냉동창고의 저장량 및 저장고 이용용적 비율, 네째, 양식수산물의 생산관측량 및 작황상태, 다섯째, 입항중인 어선의 어획물, 여섯째, 어가의 저장이나 출하시간 결정을 위한 조언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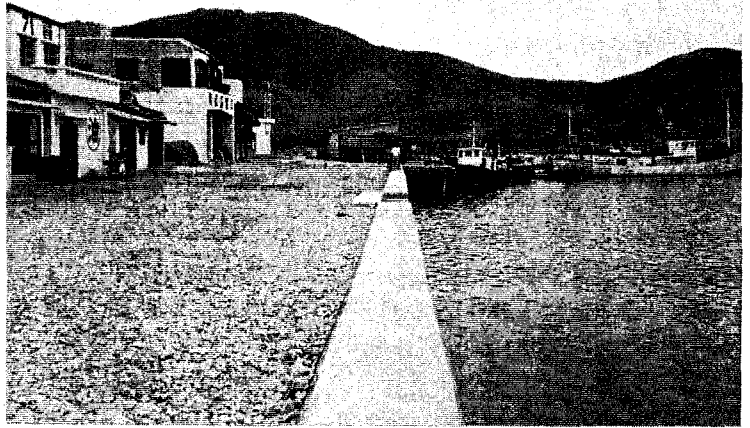
어촌의 중심어항에 위치하는 유통정보센터가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경영어가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정보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산지 및 내륙지 공판장(혹은 위판장), 시·군수협, 시·군통계출장소 어업무선국 등에서 수집분석되어 저장된 농림수산부 중앙전산실의 각종 정보는 지역유통정보센터에서 즉시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락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어민이 현지에서 정보가 필요한 때에 항상 얻을 수 있도록 TTS를 통한 유통정보센터의 자동응답장치 설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데이터베이스(Data Base)가 확충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정주권의 어업형태에 따른 어업상황이 수록되어야 하고 가격, 물량자료는 물론 수확량, 피해량, 생산비, 경기변동 및 이들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예측자료도 저장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포장 및 등급의 표준화 명세를 수록하



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세째, 정보분산방법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정보의 분산은 현재 TV, 라디오, 신문 등 대량정보전달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수협중앙회를 경유 무선국을 통하여 어선으로 전파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전자적 구제성과 신속성이 결여되며

후자는 어선어민에게는 유익하나, 양식어민이나 어촌지역주민에게는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양한 어업계층의 모든 어민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New Media활용에 의한 유통정보제공장비 및 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漁村地緣産業地區 조성

개 요

어촌경제는 어촌지역이라는 일정한 공간을 전제로 한 지역경제로서 산업적 의미 어업경제와는 그 개념이 구분된다. 따라서 농촌경제에는 어업부문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지방정부의 공경제부문과 사경제부문 또한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21세기를 향한 어촌경제의 개발은 어업발전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어촌지역 경제구조의 다양화를 위한 2,3차산업의 개발 즉

어촌공업의 개발과 해양관광산업 등의 개발을 통한 어촌고용의 창출과 소득원을 다원화하는 것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자원 즉 수산물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여 지역내에서 가공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어가소득을 제고시키며, 어촌유휴인력의 고용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연산업의 육성이 어촌개발의 중요한 정책수단이 된다.

지연산업의 진흥은 지역내의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어촌

경제사회기반이 강화되고 나아가서는 도농어촌간의 균형개발과 어촌인구의 정착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은 자연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자연산업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공급체계는 지역성(locality)을 갖는다. 즉 자연산업은 농촌내에서 산출되는 자원과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어촌내의 노동력, 기술, 자본 등 부존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한다.

둘째로 자연산업생산제품의 판로는 지역내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요를 지향한다. 따라서 자연산업의 수요측면에서 두가지의 공간차원을 포괄하게 됨에 따라 지역내의 승수효과는 배가한다.

셋째로 자연산업은 어촌내의 자원과 자본을 활용하여 완제품의 정도가 높은 지역특산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자연산업생산제품은 경제적 가치와는 별개로 지역의 긍지 내지 독자성을 표출하는 문화적 가치를 함축한다.

네째로 자연산업은 농촌외부로부터 투자와 극전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어촌정주권의 발전, 그로 인한 어촌공동체 형성 등과 관련되어 산업이 조성된다. 즉 자연산업은 도시내의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하고 주민들과 어촌내에 축적된 모든 자원을 가동한 산업이어서 내발적 개발을 뜻한다.

자연산업육성방안

자연산업은 당해지역의 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임은



자연산업의 진흥은 지역내의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어촌경제사회기반이 강화되고 나아가서는 도농어촌간의 균형개발과 어촌인구의 정착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어촌자연산업의 개발은 지역별 부존자원 및 잠재력이 어업의 형태 혹은 자연환경에 따라 다르므로 각기 특색있고 다양한 형태의 개발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물적시설 및 공간적 배치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자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촌지역경제내에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투자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 저축, 투자의 지역화, 고용창출의 지역화, 부가가치창출의 지역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의 지역화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어업노동력의 직업기술훈련을 통한 취업능력의 제고, 직업전환에 따른 직업의식의 확립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자연산업간 연관관계의 다양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촌지역내 경제활동의 승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체계와 유통체계가 분업화되고 그들간에 다양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주권을 단위로 하여 자연산업간의 총체적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단일업종으로 자연산업이 특화되었을 경우에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그 안에서 분업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자연산업의 개발은 어촌지역의 종합개발차원에서 어촌정주권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기반의 확충 및 정비 등과 밀접한 연계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촌지역의 공업입지조건은 도시에 비해 훨씬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입주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간접자본과 생활편익시설 등 전반적인 입지조건을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네째, 자연산업의 개발주체는 가급적이면 어촌지역주민이나 이들의 단체여야 한다. 자연산업의 개발은 고부가가치의 실현을 통하여 어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의 배분은 어촌주민의 소득에 보다 많이 귀속되어야 하며 개발의 이익은 어촌내에 축적되어 재투자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촌내부의 자본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에 의하여 경영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 漁村定住生活환경의 都市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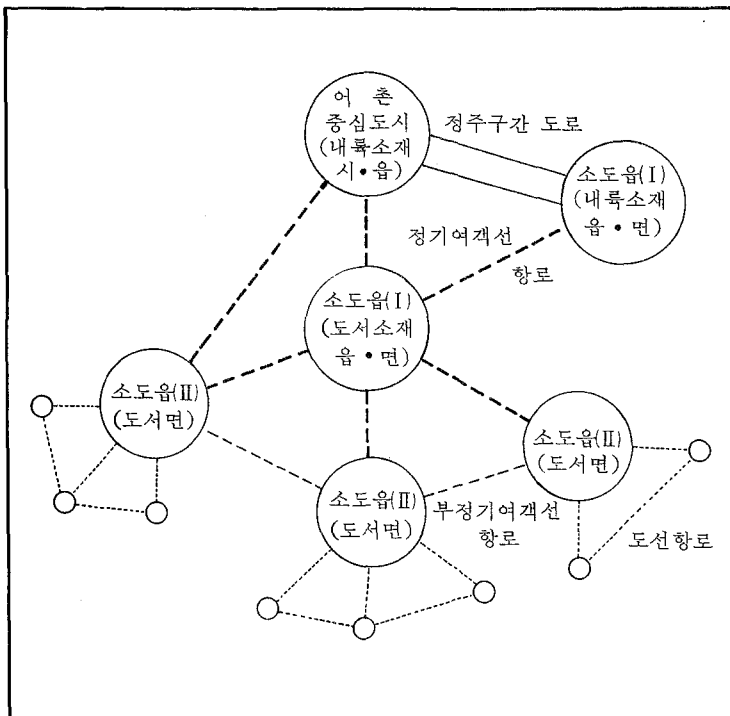
개 요

어촌은 어업생산활동과 어촌주민들의 생활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다. 생활환경의 개선과 생산활동의 효율화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생활기반과 생산기반을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의 어촌중심지는 도로, 의료 등의 기본적인 생활편익시설과 서비스에 있어서 도시수준으로 평준화되어 어촌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어촌중심도시와 소도읍 그리고 배후어촌지역을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정주체계에 따른

종합적 개발을 통하여 어촌주민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서도 도시적 편익과 서비스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기본수요가 어촌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어촌의 정주환경을 도시화하는 것이다.

어촌정주환경의 도시화를 위해서는 첫째, 어촌하부구조의 확충을 통하여 어촌주민들의 이동성과 접근도를 높이고, 어촌중심지의 개발을 통하여 이들 중심지가 어촌주민들의 일상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센터가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셋째 어촌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어촌의료망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 5) 해상교통 체계도



어촌교통체계의 확립과 도로의 체계적 개발

교통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종 기능을 연결하여 생산 및 생활에 따른 공간적 거리를 단축시켜줌으로써 어촌지역의 공간통합과 생산 및 유통활동을 촉진시키며 나아가서는 어촌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강화시켜 어촌정주생활권을 발전시키는 기초요소이다.

어촌지역의 교통체계는 육상교통체계와 해상교통체계로 구분된다. 따라서 어촌의 교통체계의 개발은 이들 두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어촌정주권은 정주권중심지의 구심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도서 혹은 오지의 격리성을 해소하고 어촌중심지와의 접근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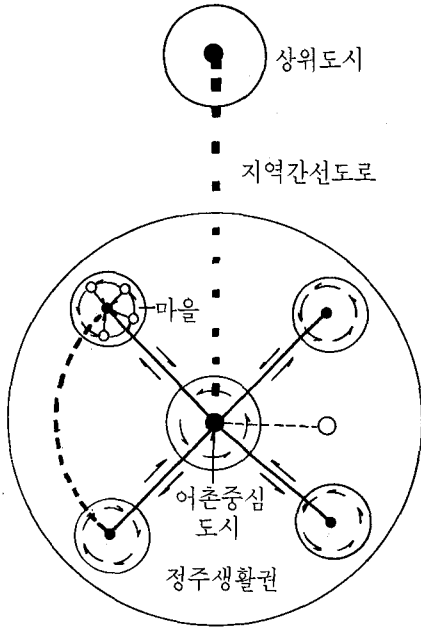
해상교통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첫째, 항포구의 접안능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어촌중심지와 중심도시, 어촌중심지간, 어촌중심지와 배후마을간의 해상연결교통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정기 및 부정기 여객선 항로의 개설을 통하여 교통오지를 해소해야 한다. 넷째, 여객선의 고도화, 대형화 및 증선 등 해상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도 5 참조)

한편 육상교통은 도로망의 구축과 육상교통수단의 확충에 의하여 체계화 된다. 어촌도로의 개발은 첫째,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정주생활권의 통합성을 확립할 수 있는 체계하에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도로는 생산→유통→

소비의 계통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포장 또한 확장되어야 한다. 셋째, 어촌지역내의 도로는 해안선을 따라 산재해 있는 취락을 순환연결하여 지역간 연계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어장 및 어항 진

입로의 확충을 통하여 생산 및 유통을 조정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육상교통시설은 중심지와 배후어촌간의 운항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 (도 6 참조)

(도 6) 어촌 도로 체계



어촌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의료자원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의료시설과 의료수준이 뒤떨어져 있다. 또한 금년부터 전체 농어촌에 실시되고 있는 의료보험제의 실시기반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됨으로써 어촌주민들의 신뢰도가 극히 저하되어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복지어촌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촌 의료조직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주생활권내에서 최소한 2

차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직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도 7참조). 둘째, 낙도, 오지 마을에 보건진료소를 확대 배치하여야 하며, 병원선의 건조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어촌지역에서 의료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부조제를 확대적용하여 국가에 의한 의료보장 혜택을 받도록 한다. 넷째, 어촌중심도시나 어촌중심지에 소재하는 12차 의료기관에 응급환자후송을 위한 환자수송선을 배치하여야 한다.

어촌교육환경의 개선

어촌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학생수도 감소하여 학교의 규모가 영

세화되었으며 학습자료, 실험실습자재 등 현대적 교육공학시설은 도시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여건의 차이로 인해 도시와 학력의 격차가 발생하고 우수한 학생들은 대도시로 빠져나가게 되어 어가(漁家)의 자녀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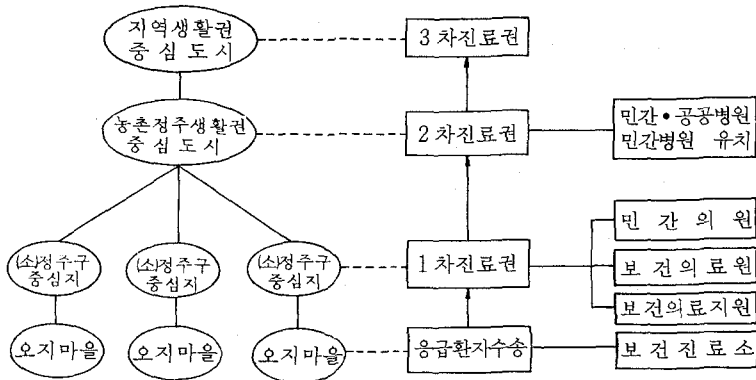
따라서 어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영세한 소규모학교를 인근의 중심성이 강한 학교로 흡수 통합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및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 등과 같은 학교의 내외적 차이를 완화시켜 학력격차가 해소되도록 한다. 셋째, 어가의 교육비 부담을 축소시키기 위해 중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어촌출신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넷째, 우수학생의 대도시 진학을 억제하고 어촌의 고급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다섯째, 어촌중심도시에 어민들의 전문교육을 위한 수산기능대학을 설립한다.

해양문화전승센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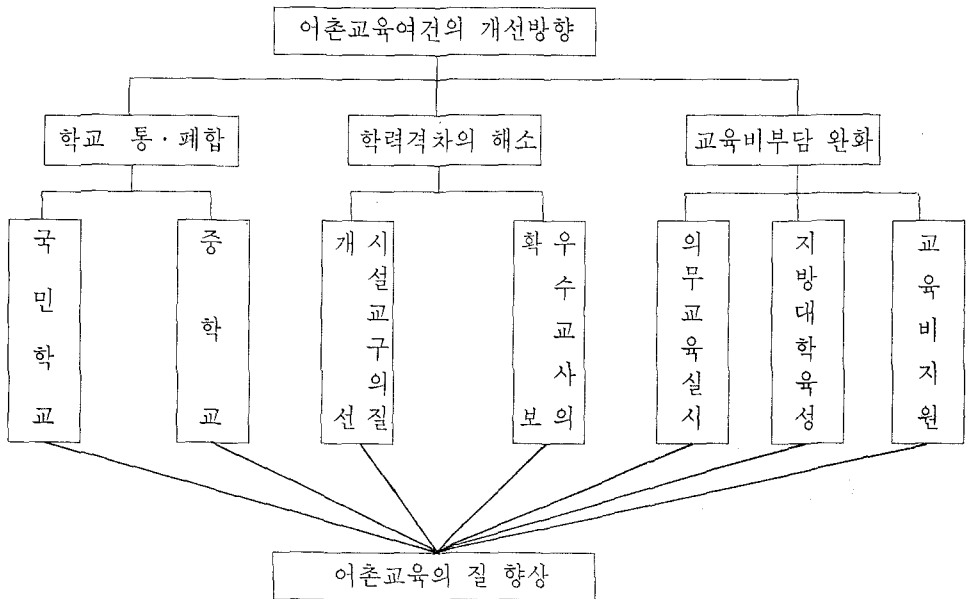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과 향토애를 바탕으로 하는 해양문화의 창달은 활력있는 지역사회의 형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된다. 해양문화는 어촌주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어업활동을 통하여 전래되어온 전통어법이나 어로제, 육신적 신앙에서 비롯된 풍어제, 부락제 등 제의식, 어식문화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전통문화의 발굴, 보전, 계승은 지역주민들의 주체성과 귀

〈도 7〉 어촌 의료진달 체계도



〈그림 8〉 어촌교육환경 개선방향



속감을 육성하게 되어 지역개발에 대한 적극적, 자발적 참여의 원동력이 된다. 또한 어촌내적 중요성 못지않게 어촌외적 면에 있어서도 도시주민이나 어촌주민들이 이러한 해양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어촌과 어민 그리고 바다를 알게 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며, 해양문화를 어촌관광상품화

함으로써 해양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어식문화의 보급 등을 통한 부가가치의 증대로 수산업과 지역경제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어촌중심지에 해양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는 해양문화전승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양문화전승센터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첫째, 당해 어촌지역의 수산업의 변천과 특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수산전시관시설, 둘째, 관람객이 직접 조작하여 어획을 재현해 보는 전통어구어법체험장, 셋째, 어촌민속전수관 공연장, 넷째, 관람객이 직접 수정란 혹은 치어를 방류하는 체험방류시설, 다섯째, 해산식품전시 및 레스토랑가 등이다.